

사회



수능 시험지 왔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9일 담양교육청에 도착한 수능 시험지를 공무원들이 운반하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 수능 응원전 금지령

### 광주·전남 교육청 '신종플루' 확산 방지

### 내일 예비소집 ... 발열 체크 뒤 수험표 교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대입수학능력시험(12일)에 고교 재학생이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선배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9일 "학생들이 집단으로 몰리던 신종플루 확산과 일탈이 우려되고 소음 공해로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응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또 수능 당일 수험생의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학교는 예비소집일인 11일 오전 9시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두 모아 발

열 체크를 한 뒤 수험표를 나눠주도록 했다. 주소 이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도 이날 오후 2시 교육청이 지정한 학교에서 발열 체크를 한 뒤 수험표를 받게 된다.

발열검사를 통해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은 지정 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의사로부터 증상 관정을 받으면 수능 당일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이미 신종플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수험생도 분리 시험실로 가야 한다. 또 해당 수험생은 관련 사실을 발열검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만약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은 시험 당일 학교나 교육청에서 수험표를 받기 전 발열 체크를 받게 된다.

또 교육당국은 현재 신종플루로 병원에 입원중인 수험생 중 희망자에 한해 수능 전날 병원시험장으로 이동,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신종플루 대비 병원시험장은 광주는 전남대병원 1곳이며, 전남은 목포가톨릭병원, 나주중앙병원, 여천전남병원, 해남종합병원, 순천의료원, 담양사랑병원 등 6곳이다.

지역 수험생들이 마무리 공부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목포시립도서관과 해남·도서관 등을 공부 장소로 확보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0~11일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오후에는 남해와 동해상의 물결이 2~4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 '수능일 풍랑 특보' 섬 수험생 오늘까지 육지 수송

### 전남 11개교 203명

전남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12일) 전날인 11일 전 해상에 물결이 거셀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도내 섬 지역 수험생들을 10일 오전까지 육지로 수송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10일 오후부터 남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풍랑특보가 발효되는 등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섬 지역 수험생들이 10일 오전까지 시험장이 배치된 육지

로 나오도록 해당 학교에 긴급 공문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지역 도서(섬)지역 수험생은 여수·여남고와 고흥 금산중고, 완도 금일고, 소안고, 노화고, 진도 조도고, 신안 도초고, 비금고, 임자중고, 하의고, 안좌중고 등 11개교 203명이다.

도 교육청은 당초 이들 수험생에게 1인당 3만원의 교통·숙박비를 지원했으나, 기상 악화로 하루 빨리 시험장 인근으로 이동함에 따라 추가(3만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섬

지역 수험생들이 마무리 공부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목포시립도서관과 해남·도서관 등을 공부 장소로 확보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0~11일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오후에는 남해와 동해상의 물결이 2~4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 “보험금 타 강남서 살고싶다” 후배 시켜 집에 불 어머니·누나 살해

### 서울 '패륜' 10대 영장

강남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욕망에 빠진 10대가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와 누나를 청부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보험금 약 3억원을 타내려고 동네 후배를 시켜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누나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존속살해교사 등)로 장모(17·무직)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지난달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김모(15·구수)군에게 “내 부모와 누나를 살해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 중 일부를 주겠다”며 중랑구에 있는 자

기 집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장군의 사주를 받고 지난달 5일 새벽 4시40분께 장군의 집에 침입해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방에서 잠을 자던 장군의 어머니 김모(49)씨와 누나(19)를 불에 타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장군은 대문 유류배달 주머니에 열쇠를 넣어 김군이 집 안으로 침입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김군에게 “만일 아버지가 살아서 나오려 하면 흥기로 썰러 살해하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범행 당시 장군의 아버지는 집을 비워 화를 피할 수 있었다.

## 하루 암 환자 광주 9·전남 16명

### 화순전남대병원 10년 통계

광주의 암환자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9건, 전남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은 모두 평균 수명(남 75세·여 82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자는 3명에 1명, 여자는 4~5명에 1명 꼴로 암에 걸리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남자의 경우 5명 중 1명, 여자는 10명에 1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9일 광주시 암통계 자료집(1997~2006)과 전남도 암통계 자료집(1999~2006)을 발간, 최근 10년간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을 발표했다.

이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암환자는 모두 3만2천529건으로 연평균 발생건수는 3천253건이었다. 또 전남에서 발생한 암환자는 모두 5만6천707건으로 연평균 발생건수는 7천88건이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발생건수가 이전 5년간 보다 광주는 43%, 전남은 20% 가량 증가, 암환자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남자의 경우 위암, 간암, 폐암 순이었으며 ▲여자는 갑상선암과 위암이었다.

## 북부경찰, 광주시교육청 압수수색

광주북부경찰이 9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시 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를 압수한 뒤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시 교육청 직원이 기자회견 납품 과정

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 내사를 해왔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사실 여부도 확인된 바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2분 / 해질 17시 30분 / 달 뜨기 13시 29분

낮부터 비... 풍랑특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 5~20mm.

도시	차차 흐려져 비	기온
광주	15/21℃	15/21℃
목포	15/19℃	15/19℃
여수	15/19℃	15/19℃
완도	15/20℃	15/20℃
구례	12/21℃	12/21℃
해남	15/21℃	15/21℃
장흥	15/21℃	15/21℃
고흥	14/20℃	14/20℃
순천	14/21℃	14/21℃
영광	14/22℃	14/22℃
진도	16/20℃	16/20℃
전주	흐림	14/21℃
남원	흐림	13/20℃
목포	차차 흐려져 비	16/18℃
목포	차차 흐려져 비	16/18℃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2/19	9/16	8/14	7/14	5/13	4/11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605-1114 / 대학원 605-1115

## 전남대도 학과 평가

경쟁력 강화 위해 취업률 등 6개 영역 우수학과엔 500만원 성과보수 등 지원

전남대학교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과(부) 운영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올해부터 학과(부) 평가를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평가는 92개 학과(부) 및 전공(일반학부, 의예과, 수의예과, 의학과, 법학과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1년간 학생현황, 취업률, 교원의 교육참여, 국제화, 교육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자구노력 등 6개 영역이다.

우수학과로 선정된 학과는 500만원의 성과보수가 주어지며 교원 성과급도 차등지급된다. 조만간 평가 컨설팅팀을 구성해 학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내년도 평가지표 개발

과 개선자료에도 활용한다.

평가에 앞서 지난 해 12월 박종현 교무처장을 비롯한 교수 10여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지표를 마련했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의 책임감의 이행 비율, 강의 평가 결과, 강의계획서 등재 비율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했으며 외국인 학생, 교환수, 외국파견 교환학생, 외국어 강좌 수 등도 포함했다.

또 학생 재직률, 신입생 등록률, 취업률 등을 포함하는 등 학생 관리에 대한 교원들의 책임과 취업지도 강화 등을 유도했다.

(주)골프세상에서 당신만을 위한 클럽을 만나보십시오.

골프세상 상무점 11월 5일 OPEN

062-385-0689

광주광역시 서구 서평동 1231-3번지 1F

초절전 귀뚜라미 거꾸로 냉난방기

8월 8일

0621 252-2900